내년 서울에서 만납시다

# 友情의6日—聖火는 꺼지고

## 幕내린 61회體典 횃불터널속에 아쉬운作別

【全州=體典취재반】승자도 패자도 없었다。활활 타오르던 성화도 이제꺼지고、어둠이 깔린 그라운드에는 이별의 아쉬움 뿐이었다。전국 11개시도와 5개 해외동포(일본 미국 서독 사우디아라비아 홍콩) 선수단들은 한덩어리로 어깨동무하고 석별의정을 나누었다。올드·랭·사인이흐르는가운데 「새 時代」의 개막과 더불어 열린 전국체전의 막을 내렸다。全北 2백30여만 도민들은 훌륭히 대회를 치러냈다。

◇제61회 전국체전폐회식에서 1위 경기도①、2위 서울②、3위 전남③ 대표가 우승기와 트로피를 높이쳐들고있다。【全州=[illegible]】

## 慶南高、大魚 善隣낚아

### 야구高等部 결승 頂上의 영광안아 4-3

京畿의 종합우승은 감격적인 뒤집기였다。마지막순간까지 서울과 열띤 시소를 벌여 2백17점차로 뒤집어、2년만에 전국정상에 복귀했다。

13일 열린 각부구기종목 결승전은 이번대회의 하이라이트。폐회식에앞서 열린 축구 일반부 결승전 忠義(경기)—서울市廳(서울) 대결에서는 忠義가 4—0으로이겨 체전의 마지막을 장식했다。[illegible](경북)은 야구일반부결승서 강호 [illegible](서울)과맞서 5번 金月照의 결승2점 홈런으로 4—2로이겨 우승했고 고등부결승전서 慶南高(부산)는 금년도 전국대회 2관왕 善隣高(서울)를 4—3으로 물리쳐이변을일으켰다。

농구에서도 예상을 뒤엎은 역전 드라마가 속출、光州高(전남)는 금년도2관왕 松都高(경기)를 77—70으로 물리쳐 체전남고부서 첫 우승을 차지 했으며 여고부 결승서 東洲女商(부산)은 금년도 3관왕 善一女商(서울)을 84—79로 꺾었다。관심을 모은 농구 남일반부 三星(경북)—現代(경기) 대결에서는 現代가 75—69로 이겼다。이날 배구 여일반부결승서 美都波(충북)는 金花順의 맹활약으로 泰光産業(부산)을 3—0스트레이트로 물리치고 우승 했고 여고부서는 馬山第一(경남)이 中央女高(서울)를 3—1로 꺾었다。

핸드볼의 우승은 東亞高(부산) 一信女商(충북) 朝鮮大(전남)에게 돌아갔고 탁구여고부서는 서울女商、남고부서는 淸州商(충북)가 각각우승 했다。

## 소년체전水泳 崔允庭한국新

### 여중背泳1百m

【全州=體典취재반】崔允庭(서울)은 13일 열린 소년체전 수영 여중배영1백m에서 1분07초88로 자신의 한국기록(1분07초98)을 깨고 한국신기록을 세웠다。이날 여중계영4백m에서 서울팀(최윤정、김금희、김선희、김현선)은 4분22초10을 기록、종전한국기록을 1초38단축하고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 光州高는 농구 패권

### 올2冠王 松都高깨뜨려 77—70

### 최종일각종목결승

◇축구
▲고등부 전남숭의실고 2—1 경기신흥실
▲대학부 서울연세대 1—0 경북영남대
▲일반부 경기충의 4—0 서울시청

◇야구
▲고등부 부산경남 4—3 서울선린
▲일반부 경북포철 4—2 서울경리단

◇농구
▲남고 전남광주 77—70 경기송도
▲여고 부산동주 84—79 서울선일
▲남대 서울고려 106—60 전북대학
▲남일반 경기현대 75—69 경북삼성
▲여일반 경북코오롱 60—53 부산삼성

◇배구
▲남고 충남삼고 3—1 전남대동
▲여고 경남마산제일 3—1 서울중앙
▲남대 서울경기 3—1 경기인하
▲여일반 충북미도파 3—0 부산태광
▲남일반 경북금성 3—0 충남육군통신

◇럭비
▲고등부 전북이리농 3—0 충북고교
▲일반부 서울육군윤지 42—6 충남대

◇탁구
▲남고 충북청주 4—2 부산금성
▲여고 서울여상 4—1 경북근화
▲남대 충남숭전 4—2 전북대
▲여대 서울동덕 4—0 경북효성
▲남일반 경북제일합섬 4—2 서울국정교과서
▲여일반 경북제일모직 4—2 경남선발

◇테니스
▲남대 서울명지 3—0 경남울산공
▲남고 충남대전 공동우승 전북성원
▲여고 전북영광 공동우승 경남선명여상、
▲남일반 경북선발 공동우승 경기대우중공업
▲여일반 경기선발 공동우승 강원선발

◇메달 최종집계

| 구분<br>시도 | 금 | 은 | 동 |
|---|---|---|---|
| 서울 | 52 | 55 | 74 |
| 부산 | 49 | 43 | 68 |
| 경기 | 67 | 49 | 79 |
| 강원 | 13 | 30 | 48 |
| 충남 | 40 | 50 | 74 |
| 충북 | 42 | 29 | 55 |
| 전남 | 60 | 53 | 73 |
| 전북 | 44 | 48 | 49 |
| 경남 | 47 | 40 | 54 |
| 경북 | 50 | 50 | 44 |
| 제주 | 1 | 4 | 5 |
| 재일 | — | — | 2 |
| 재미 | 1 | — | 1 |
| 재독 | — | — | — |

## 解說

### 61회 전국體典 決算

## 본궤도에오른 雜音없는 大會

### 남자洋弓 朴益洙발굴 성과

### 平準化…종합득점 격차줄어

「새시대 새의지 새체전」의 캐치프레이즈를내건 제61회 전국체육대회는 京畿가 종합우승을차지한 가운데 13일 폐막됐다。

77년 제58회 光州체전때 종합우승、서울의 7연패에 제동을 걸었던 京畿는 지난해 60회 체전(大田)서 2위로 밀려났으나 구기종목의 강세를 바탕으로 각종목서 고른 득점을 올려 서울을 제치고 2년만에 종합우승을 탈환、개가를 올렸다。

6일간에걸쳐 全州·群山서 27종목을겨룬 이번 체전은 59회仁川、60大田 체전 못지않은 훌륭한 스포츠 제전이었으며 전국 각시도선수단이 자제력을 발휘、큰사고없이 대회를 마쳤다。한국 스포츠의 잠재력과 응집력을 결산하는 전국체전은 경기대회적인측면과 페스티벌적인 의의를 동시에 요구하고있는 때 이번 全州체전은 이 두가지 요소를 대과없이 조화시켜 성공을 거둔셈이다。

메인 이벤트 육상을비 못하여 수영 양궁 역도에서 한국신기록이 나와 기록면서도 평년수준을유지했다。특히 남자양궁의 호프 朴益洙(전남체고)의 발굴은 이번대회의 최대의 수확이었다。

朴은 남고 90m싱글라운드와 싱글 종합서 각각 한국 신기록을 세운후 90m더블에서 6백6점을 올려 비공인 세계신기록을 세웠으며 朴을 중심으로한 全南體高팀은 남고단체종합서 7천4백44점으로 비공인 세계신기록을 수립、金珍浩가 베를린 세계선수권대회서우승한 이래 양궁의 새로운 스타로 떠올랐다。

종합득점과 메달경쟁에서 상위팀간의 격차가좁아진것도 특기할만한 현상이었다。종목별로 서울과 각시도간의 경기력이 날로 평준화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과열득점경쟁으로 한때 큰 물의를 빚었던 전국체전은 관계자들의 자숙과 노력에 의해 이제安全運行의 궤도에 진입했으나 체전운영면서 개선할점이 적지않다。앞으로의 체전서는 量보다는 質의 가치를 정립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체전의 경기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국신기록이 몇개 수립되었느냐는것은 큰문제가 아니며 신기록의내용이 얼마나 세계수준에 접근 했느냐는 점에 역점을 두고 대회를 운영해나가야 하겠다。

全北이 이번 체전에부입한 총 예산은 8백30여억원。실제대회 운영에만 2백30여억원이 들었는데 全北도민을 비롯하여 대회를치른 全州 群山 裡里시민들은 일치단결하여 큰 행사를완료、전국 시도와 해외동포선수들에게 짙은 감명을심어주었다。【體典취재반】

### ◆신기록 집계

(괄호안은 종전기록)

◇세계신(비공인)
▲궁도남고90m더블=朴益洙(全南體高) 606(602)
▲궁도남고더블단체종합=全南體高 7451(7444)
▲궁도여일반더블단체종합=慶北선발 7587(7502)

◇한국신
▲육상여고높이뛰기=李吉禮(全北) 1m76(1m75)
▲육상여고1백m허들=田玉金(全北) 14초4(14초5)
▲수영남일반자유형1백m=李熏喆(충남) 56초80(57초05)
▲수영남고개인혼영2백m=李忠原(서울) 2분19초68(2분20초30)
▲수영남고 계영8백m=京畿팀 8분46초28(8분46초78)
▲궁도남고90m싱글=①朴益洙(전남) 317 ②韓鎭浩(서울) 306(303)
▲궁도남고싱글종합=朴益洙(전남) 1292(1277)
▲궁도남일반50m싱글=李允體(충남) 333(327)
▲궁도남고더블종합=朴益洙(전남) 2544(2522)
▲역도남일반60kg급용상=李明洙(부산) 150·5kg(150kg)
▲역도남일반100kg급용상=安知榮(경기) 191kg(190·5kg)

◇신기록 수립현황

| 기록<br>종목 | 세계신 | 한국신 | 한국타이 | 대회신 |
|---|---|---|---|---|
| 육상 |  | 2 | 1 | 25 |
| 수영 |  | 5 |  | 63 |
| 궁도 | 3 | 5 |  | 14 |
| 역도 |  | 2 |  | 2 |
| 사격 |  |  |  | 10 |
| 사이클 |  |  |  |  |
| 합계 | 3 | 14 | 1 | 114 |

## 필리즈、월드시리즈에

### 아스트로스制壓…로열즈와 爭霸

【휴스턴(텍사스州) AP=聯】필라델피아 필리즈는13일상오(이하한국시간) 휴스턴구장에서 열린 美프로야구 내셔널리그 우승결정전 최종 5차전에서 휴스턴 아스트로스를 10회연장끝에 8—7로 제압、3승2패로 리그챔피언에 올라 15일상오 홈그라운드에서 아메리칸리그 챔피언 캔자스시티 로열즈와 7전4선승제의 월드시리즈를 펼친다。

필리즈의 월드시리즈 진출은 30년만의 첫경사다。

## 弓道 朴益洙선수등

### 4명에 奬學金지급

【全州=體典취재반】국민체육진흥재단 이사장은 13일하오 체전 궁도경기에서 세계신기록을 수립한 全南體高의 朴益洙선수를 비롯한 4명의 全南체고선수들에게 각9만7천2백80원씩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수혜자명단 ▲朴益洙 ▲林貞洙 ▲朴明國 ▲林彩雄

## 韓國、綜合성적 18位

### 世界아마골프

【파인허스트(노드캐롤라이나州) 12日UPI=聯】韓國골프대표팀은 12일 이곳에서 폐막된 제8회 세계아마골프선수권대회에서 총63오버파 9백27타로 총38개참가국중 종합성적18위를 차지、중위권에 머물렀다。

## 中共프로테니스

### 國際선수 32명出戰

【廣東(中共) 11日聯=聯】상금 5만달러가 걸린 中共최초의 프로테니스대회가 세계랭킹 3위인 美國의 지미·코너스를 비롯、美國·英國·칠레등 국제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12일 廣東에서 개막됐다。

7일간 진행될 이대회에는 中共선수 3명을포함、모두 32명이 출전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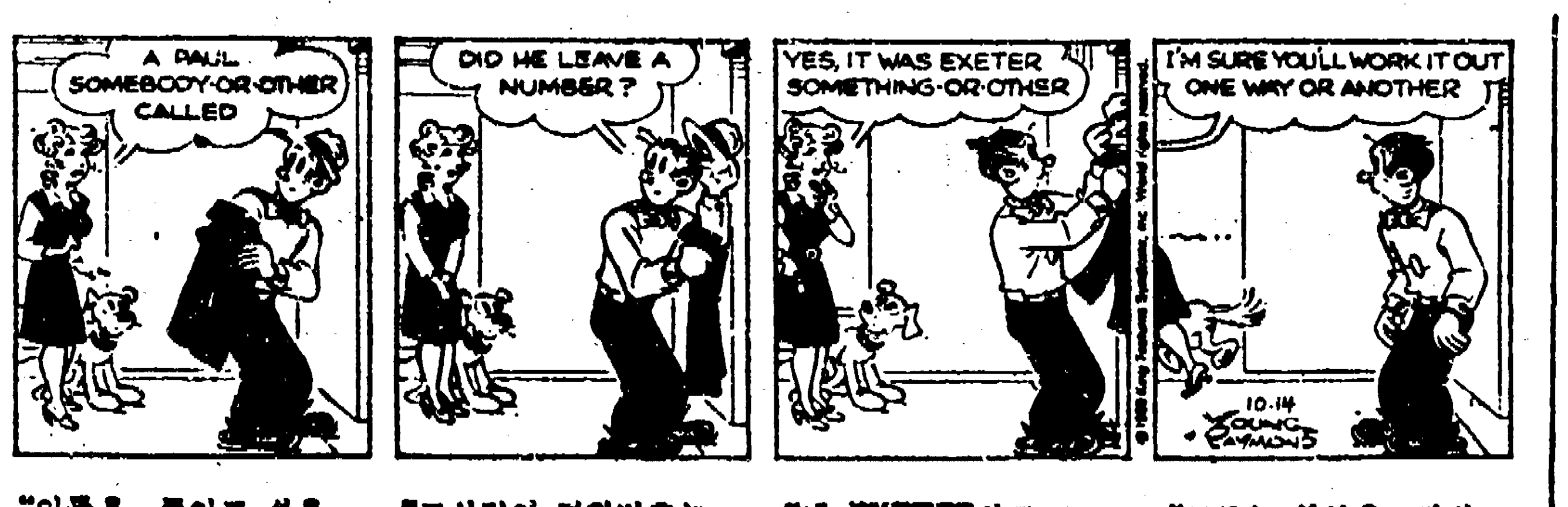
### ◇제61회 전국체육대회 종합득점표

| 구분<br>시도 | 육상<br>트랙 | 육상<br>필드 | 육상<br>마라톤 | 수영 | 축구 | 야구 | 테니스 | 연식정구 | 농구 | 배구 | 탁구 | 핸드볼 | 럭비풋볼 | 사이클 | 복싱 | 레슬링 | 역도 | 씨름 | 유도 | 검도 | 궁도 | 사격 | 승마 | 체조 | 하키 | 펜싱 | 배드민턴 | 태권도 | 조정 | 득점 | 순위 |
|---|---|---|---|---|---|---|---|---|---|---|---|---|---|---|---|---|---|---|---|---|---|---|---|---|---|---|---|---|---|---|---|
| 서울 | 969 | 1173 | 353 | 2682 | 1213 | 1055 | 1195 | 824 | 1267 | 997 | 1329 | 801 | 1068 | 383 | 849 | 1160 | 1017 | 517 | 2104 | 468 | 633 | 2098 | 781 | 1512 | 337 | 600 | 1272 | 1522 | 1138 | 31257 | 2 |
| 부산 | 1329 | 1345 | 574 | 461 | 697 | 863 | 742 | 709 | 736 | 929 | 856 | 565 | 303 | 858 | 1109 | 1746 | 1219 | 1353 | 2148 | 921 | 1912 | 431 | 610 | 403 | 395 | 1020 | 703 | 1207 | 565 | 26709 | 6 |
| 경기 | 1859 | 1178 | 353 | 2134 | 954 | 645 | 1319 | 1085 | 1093 | 602 | 745 | 564 | 645 | 871 | 1167 | 605 | 2339 | 935 | 1353 | 869 | 1563 | 1905 | 398 | 2355 | 494 | 548 | 457 | 1644 | 805 | 31474 | 1 |
| 강원 | 287 | 915 | 403 | 282 | 579 | 248 | 925 | 471 | 407 | 566 | 882 | 354 | 248 | 740 | 1274 | 1125 | 820 | 398 | 666 | 303 | 527 | 1258 | 626 | 364 | 736 | 861 | 470 | 661 | 823 | 18219 | 10 |
| 충남 | 1219 | 1342 | 705 | 1872 | 461 | 275 | 1052 | 680 | 389 | 885 | 922 | 604 | 748 | 489 | 1005 | 1125 | 2358 | 438 | 812 | 847 | 1034 | 1431 | 247 | 1148 | 1294 | 852 | 411 | 1260 | 738 | 26643 | 7 |
| 충북 | 719 | 787 | 936 | 3856 | 697 | 480 | 782 | 808 | 478 | 790 | 825 | 895 | 748 | 31 | 842 | 868 | 547 | 537 | 445 | 575 | 395 | 918 | 133 | 1113 | 1125 | 960 | 926 | 999 | 415 | 23635 | 8 |
| 전남 | 2085 | 997 | 816 | 983 | 1002 | 440 | 658 | 1272 | 816 | 1041 | 586 | 1006 | 645 | 938 | 2094 | 1769 | 1732 | 696 | 1041 | 747 | 1661 | 813 | 1010 | 1012 | 590 | 841 | 800 | 1479 | 473 | 29970 | 3 |
| 전북 | 806 | 672 | 907 | 637 | 556 | 508 | 1662 | 680 | 958 | 650 | 748 | 841 | 863 | 2185 | 1714 | 1917 | 839 | 537 | 977 | 1090 | 545 | 863 | 1108 | 975 | 444 | 1438 | 1140 | 1182 | 565 | 28007 | 5 |
| 경남 | 1594 | 705 | 403 | 3170 | 320 | 645 | 1072 | 511 | 544 | 830 | 748 | 445 | 480 | 548 | 909 | 1432 | 1519 | 1035 | 624 | 575 | 484 | 730 | — | 1049 | 433 | 989 | 827 | 1602 | 225 | 23548 | 9 |
| 경북 | 1218 | 1112 | 1228 | 934 | 649 | 863 | 837 | 680 | 869 | 562 | 1503 | 466 | 275 | 938 | 1168 | 1234 | 1209 | 716 | 2044 | 762 | 1856 | 1418 | 742 | 864 | 444 | 990 | 844 | 1271 | 795 | 28091 | 4 |
| 제주 | 35 | 14 | 202 | 13 | 253 | — | 88 | 279 | — | — | 45 | — | — | — | 301 | — | — | 219 | 122 | 196 | 29 | 493 | — | — | — | — | 49 | 860 | — | 3198 | 11 |
| 재일 | — | — | — | — | — | — | 219 | — | 344 | 48 | 172 | — | — | — | 90 | 78 | — | — | 44 | — | — | 236 | — | — | — | — | — | 115 | — | 1345 | 12 |
| 재미 | — | — | — | 136 | — | — | 88 | — | — | — | — | — | — | — | 97 | — | — | — | — | — | — | 43 | 266 | — | — | — | — | 98 | — | 728 | 13 |
| 재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 | — | — | — | — | — | — | — | 22 | 14 |

블론디

딘·영 作

本社特約·東亞通信


A PAUL SOMEBODY-OR-OTHER CALLED
DID HE LEAVE A NUMBER?
YES, IT WAS EXETER SOMETHING-OR-OTHER
I'M SURE YOU'LL WORK IT OUT ONE WAY OR ANOTHER
10-14

"이름은 폴이고 성은 뭐랬는지알수없는 사람한테서, 전화가 왔었어요"

"그사람이 전화번호는 알려주던가?"

"네, EXETER하고 그 다음은 잘모르겠어요"
※EXETER : 숫자를 문자로 표시한 전화번호

"모르는 부분은 당신이 그럭저럭 알아내면 될거 아녜요."

운전
영업용 중장비
자가용 대형
▼강남경찰서앞
영동자동차학원
(57)0294 (58)9972
이란반모집
반포자동차학원
영동시장네거리—고속터미널북쪽50m
(57)4903

피부에 스미는 자연의 숨결

피어리스
모드니에
콜드크림, 에모리엔트 콜드크림

콜드크림의 자연성분이 피부의 피로를 풀어주고 윤기있고 탄력있는 피부로 가꾸어 줍니다.

피부가 거칠어지고 기미, 잔주름, 주근깨가
피어나기 쉬운, 지금—
모드니에 콜드크림으로
윤기있고 탄력있는 피부로 가꾸세요.
특수식물에서 정선된 미용 성분이
맛사지 하는 동안 촉촉히 스며들어요.
피부에 스미는 자연의 숨결
피어리스 모드니에.

행인유(Apricot Kernel Oil)
미용제로 옛부터 애용되어 왔으며, 피부에 대한 미백효과가 뛰어나고, 언제나 싱싱한 피부로 유지시켜 줍니다.

알로에(Aloe)
열대, 아열대 지방의 건조한 곳에서 자라는 식물로 보습작용이 뛰어나 피부의 "모이스춰 밸런스"를 알맞게 유지시켜 줍니다.

감초산 유도체
(Dipotassium Glycyrrhizinate)
인류사상 가장 오래된 약초로서 각종 자극으로 거칠어지기 쉬운 피부를 보호하고, 피부에 대한 친화성이 우수하며, 유연하게 가꿔줍니다.

위치하젤(Witch-Hazel)
천연 생약 식물로 피부에 대한 수렴효과가 우수하며 피부색을 아름답게 유지시켜 줍니다.

피어리스

MODERNE
NOURISHING MILK
MODERNE
EMOLLIENT COLD
MODERNE